



① 주제공연 <봄날의 꿈>

문화평론가 조병준 씨가 대본을 쓰고 국내 영향력 있는 여성연출가 중 한 명인 김아라 씨가 총 연출을, 음악가 임창동 씨가 작곡과 연주를 맡아 아름다운 우리 시 30여 편을 연극적으로 표현해 호평을 받았다. 스산한 왕릉의 불밤을 형형색색의 강렬한 조명과 아름다운 음악으로 물들여 문학을 다양한 예술로 변모시키려는 시도를 보여줬다.

② 2007 세종대왕릉 문학나눔큰잔치가 '사랑하라 사랑아'를 주제로 경기도 여주 세종대왕릉 진디마당에서 펼쳐졌다. 한글의 세계적 우수성을 되새기고 우리 문학의 발전을 기원하는 행사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큰잔치 '사랑하라 사랑아!' 왕릉 정적 깬 봄밤 문학 한마당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김병익)가 주최하고 문학나눔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치수)가 주관한 <2007년 세종대왕릉 문학나눔큰잔치>가 지난 5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릉에서 열렸다. 지난해 한강둔치에서 '노래하라, 사랑아'라는 주제로 첫 행사를 진행한데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사랑하라 사랑아'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글_송보경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인터넷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 - 행복한 문학여행' 공개방송. 소설가 이기호가 진행하고 작가 박법신, 은희경이 초대손님으로 출연했다. 최근 소설집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를 펴낸 후 장편소설 집필을 위해 박경리 토지문화원에 거주하며 창작 중인 소설가 은희경과 명지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돌아온 소설가 박법신은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란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독자와의 소통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솔직하고 유머러스하게 풀어내 방청객들의 관심과 웃음을 지어냈다.

문 학나눔위원회는 세종대왕 탄생 610년을 기념하면서 한글창제와 조선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로 행사장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과 1문화재 1지킴이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글과컴퓨터가 행사 후원을 맡았고 자랑스런 우리 언어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문학의 발전 현황을 되새겨 보는 프로그램으로 꾸몄다. 앞으로 우리 문학이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엿보인 행사였다.

늦은 봄비가 내리던 금요일. 여주시 세종대왕릉 내 잔디마당에는 곳은 날씨에도 관람객 200여 명이 문학나눔위원회가 마련한 '사랑하라 사람이' 행사 관람을 위해 모였다. 인터넷으로 참가 신청해 주최 측이 마련한 버스로 행사장을 찾은 이들 40여 명과 여성보호시설, 복지관 등에서 초청된 장애우와 학생, 일반 관람객들이었다. 이들은 예술위가 선정한 우수문학도서를 전시해 놓은 야외 '문학카페'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으며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우산으로 부슬비를 피하며 왕릉 이곳저곳을 산책하기도 했다.

공식적인 첫 행사로는 5시부터 진행된 라디오 공개방송. 국내 유일 인터넷 문학라디오 프로그램 '문장의 소리 - 행복한 문학여행'은 아카펠라 그룹의 축하무대에 이어 소설가 박법신, 은희경 씨가 초대손님으로 출연해 관객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문학작품의 다양한 변주 방식을 국민과 나누자는 이번 행사의 취지는 저녁 7시 30부터 열린 주제공연 <봄날의 꿈>에서 절정을 이뤘다. 고요하던 왕릉의 정적을 깨고 넓은 잔디를 무대 삼아 공연된 복합장르 음악극 <봄날의 꿈>은 시인 신경림의 <갈대>, 황학주의 <막 어두워지는 숲길>, 기형도의 <물속의 사막> 등 사계절을 노래한 시인 30여 명의 시를 토대로 인간 삶의 사계를 보여준 독특한 작품이었다. 연출가 김아라 씨와 작곡가 임동창 씨의 피아노 라이브 연주로 음악을 만들어 봄밤의 정취를 즐기러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의 눈과 귀를 시원하게 만들었다. 함축된 언어로서의 시의 맛을 음미하면서 더불어 연극 언어로의 가능성을 제시한 <봄날의 꿈>을 본 시민들은 "독특한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문학나눔위원회는 문화와 예술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행사 목적을 살려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